



논산 육군훈련소

육군 제2훈련소 면회장을 찾은 가족이 논두렁에서 음식을 만들어 피는 상인에게 국수와 수제비를 사고 있다.
1955년 8월 15일 [사진/임인석]

'불멸의 가객(歌客)'으로 이름을 남긴 김광석은 「이등병의 편지」로 입대를 앞둔 가까머리 젊은이들의 심금을 꽤나 울렸습니다. 이 노래에 등장하는 훈련소를 대표해온 곳이 논산훈련소로 더 잘 알려진 육군훈련소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신병훈련소이기도 한 논산훈련소는 건강한 자식을 둔 대한민국 가정이라면 최소한 한 번쯤은 인연이 있을 겁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1월 1일 신병 기초군사훈련을 담당하는 '육군 제2훈련소'로 창설됐다가 1999년 육군훈련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육군에 들어가는 장병 가운데 일부는 사단 신병교육대로 가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당당한 군인으로 변신한 뒤 각자의 부대에 배치됩니다. 입소한 장정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설렘을 안겨주는 육군훈련소 면회 풍경의 변화상을 사진으로 더듬어 봅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던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이취움이 남지만

풀 한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갓 쓴 아버지가 아들인 훈련병에게 줄 무언가를 주머니에서 꺼내고 있다.
1955년 8월 15일 [사진/임인석]



1955년



총검술 훈련을 하는 훈련병들
1953년 [사진/임인석]

1953년



육군 제2훈련소 면회장 준공 기념 아치
1955년 8월 15일 [사진/임인석]

1955년



1993년

면회 온 가족이 훈련병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다.
1993년 6월 1일 [연합뉴스 DB]

2015년



수료식에서 전투복에 처음으로 태극기를 부착한
훈련병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5년 7월 29일 [연합뉴스 DB]